

여수 컵대회 ‘반쪽짜리’ 전략...배구연맹 ‘혼란 자초’

NH농협 CUP 2025 여수 프로배구대회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V리그 전초전 격인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에서 중도 하차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1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결과, 이번 대회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한국배구연맹(KOVO)에 양해를 구한 뒤 대회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남자 배구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포함됐던 선수들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팀 전력 자체를 꾸리기가 어려워졌다”며 “아포짓 스파이커와 리베로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선수는 8명뿐인데,

구단들 국제 규정 위반 지적에도 일정 강행 현대캐피탈 중도 하차 속 6개 팀으로 진행

대회 출전을 강행하면 부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는 V리그 남은 6개 팀이 경쟁하는 ‘반쪽짜리 이벤트 대회’로 전락했다.

KOVO는 “현대캐피탈의 잔여 경기는 부전패 처리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펼쳐진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개막전 결과는 무효로 하지 않고 공식 기록에 남는다.

KOVO 관계자는 파행 운영에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거듭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KOVO가 자초했다.

당초 복수의 구단은 컵대회 일정이 세계선수권대회와 겹치면 안 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위배된다며 KOVO에 여러 차례 문의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OVO는 문제없다는 답변과 함께 대회 개막을 강행했다.

하지만 KOVO가 FIVB에 외국인 선수 출전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각국은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컵대회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KOVO는 개막 첫날 펼쳐질 예정이었던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기를 하루 미룬 뒤 “FIVB에 재문의한 상황”이라며 파행의 조짐을 보였다.

KOVO는 FIVB의 답변을 듣지 못하자 14일 새벽 전격적으로 남자부 대회 취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정도 수 시간 만에 번복했다. KOVO는 14일 오전 FIVB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대회 재개를 공시했다.

문제는 계속됐다. FIVB는 KOVO에 보낸 공문을 통해 컵대회 개최 조건으로 ‘KOVO컵을 위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제한’, ‘외국인 및 외국인 선수 참가 불허’, ‘예비 명단을 포함한 세계선수권대회 등록 선수의 출전 불허’를 담았다.

KOVO는 초청팀 나르니차시마를 대회에서 제외하는 결례 속에 FIVB의 조건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구단은 난색을 보였다.

지난 달 FIVB에 제출한 예비 명단엔 현재 배구 대표팀에 속한 14명과 각 소속팀으로 돌아간 11명의 선수가 포함됐다.

일부 구단은 예비 명단에 포함됐던 선수를 컵대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선수가 부족해서 전력을 꾸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KOVO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진행 중인 필리핀 현지로 관계자들을 급파해 FIVB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KOVO는 설득에 실패했고, 14일 밤 V리그 각 구단에 상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0.03초차...마라톤, 100m보다 치열했다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알폰스 필릭스 심부(왼쪽 두번째)와 아미날 페트로스(왼쪽 세번째)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마라톤, 탄자니아 심부 사진 판독으로 우승 확인

알폰스 필릭스 심부(33·탄자니아)가 역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남자 마라톤은 0.03초 차로 1, 2위가 갈렸다.

남자 100m 1, 2위를 가른 0.05초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심부는 15일 일본 도쿄 시내를 돌아 국립경기장으로 들어오는 42.195km 마라톤 풀 코스를 2시간 09분48초에 달렸다.

2위 아미날 페트로스(30·튀르키예)의 기록도 2시간

09분48초였다.

둘은 국립경기장 직선 주로에 진입한 뒤 단거리 선수처럼 달렸다.

페트로스가 결승선 앞에서 넘어져 맨눈으로 1, 2위를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웠다.

세계육상연맹은 사진 판독을 거쳐 ‘심부가 0.03초 차로 우승했다’고 발표했다.

14일 열린 남자 100m 결선에서는 오빌리크 세빌(자메이카)이 9초77로, 9초82의 키세인 톱프스(자메이카)를 0.05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42.195km를 달린 마라톤에서 100m보다 더 치열

한 접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실제로 세계선수권 마라톤에서 1, 2위가 ‘초’까지 같은 기록은 낸 건,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2001년 에드먼턴 대회에서 계자행 아베라(에티오피아)가 2시간12분42초로, 2시간12분43초의 사이먼 비유티(케냐)를 1초 차로 제친 게, 종전 최소 격차였다.

당시에는 육안으로도 1, 2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탄자니아의 역대 세계육상선수권 첫 금메달은 이렇게 극적으로 탄생했다.

2017년 런던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심부는 8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부는 올림픽 채널과 인터넷에서 “오늘 나는 탄

자니아에 첫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안기는 새 역사를 썼다”며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이 자리에 섰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결승선 앞에서 그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0.03초 차로 금메달을 놓친 페트로스는 “막판에는 100m 선수처럼 달렸다. 우승만 생각했기에 어렵다”며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은 은메달을 딴 것에 감사해하고, 내일을 위해 다시 훈련하겠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한국의 박민호(코오롱)는 25km 지점을 83위(1시간25분06초)로 통과한 뒤, 레이스를 중단했다.

이날 88명이 출발선에 섰고, 박민호를 포함한 22명이 완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김하성 시즌 첫 3안타

김하성(애들랜타 브레이브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김하성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김하성이 한 경기에서 3안타 이상을 친 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지난해 7월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2021년부터 빅리그 무대를 누비는 김하성의 MLB 한 경기 최다 안타는 4개다.

첫 타석에서는 운이 따랐다.

김하성은 2회 상대 왼손 선발 프람버 발데스의 커브를 건드렸다.

타구는 1루 파울 라인 쪽으로 굴렀고, 발데스가 한 번에 공을 잡지 못해 김하성이 1루에 먼저 도달했다.

마르셀 오수나의 볼넷으로 2루, 마이클 해리스 2세의 중견수 뜬공 때 3루에 도달한 김하성은 샌디 레온의 2루수 땅볼 때 홈을 밟았다.

김하성은 3회에는 발데스의 바깥쪽 시속 155km짜리 싱커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쳐, 일찌감치 말티 히트를 달성했다.

타점도 올렸다.

김하성은 팀이 4-2로 앞선 5회말 무사 1, 3루에서 발데스의 시속 127km 커브를 받아쳐 시속 157km로 빠른제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1타점 적시타를 뽑아냈다.

6회에는 비거리 103m 타구를 만들었지만, 좌익수에게 잡혔다.

김하성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이날 네 번째 출루를 기록했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20에서 0.238(122타수 29안타)로 올랐다. 애들랜타는 휴스턴을 8-3으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정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 5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잠

잠했다. /연합뉴스

신창무 “3년차 되니 ‘이정효 축구’가 보인다”



K리그1 29라운드 수원전 2도움...광주FC 승리 이끌어

“3년 차가 되니까 이제야 이정효 감독님의 축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동점으로 맞선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2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K리그1 광주FC의 베테랑 신창무(32)는 “감독님과 축구를 보는 관점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다”며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 된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신창무는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오른쪽 공격수로 교체 투입됐다.

2-2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신창무는 후반 37분 골문 정면으로 침투 패스를 찰라 넣어 추가골

을 이끌었고, 추가시간 5분에는 파포스트를 향한 정확한 크로스로 쉐기골을 도와 승리에 이바지했다.

이날 신창무는 울려 팀을 떠난 핵심 공격수 아사니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른쪽 측면에서 제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그는 “아사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노력하고 있다”며 “(박)인혁이, (정)지훈이도 오른쪽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저는 아사니처럼 직선적인 공격보다는 동료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푸는 편이다.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동료들이 너무 잘해주는 덕분에 오늘 좋은 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신창무는 중앙 공격수에 더해 중앙 미드필더, 측면 수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과 지질 줄 모르는 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부터 광주 경기의 절반 정도에는 아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하락세가 뚜렷해 보였지만, 울려 팀에 완전히 들어오고, 감독님과 급가는 기량으로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제 좀 감독님의 축구에 녹아드는 기분”이라며 “지금의 좋은 몸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독님과 선수들끼리 미팅을 정말 자주 하는데 세세하게 상황을 분해해서 전술 훈련을 하는 게 이제 머리에 완전히 들어오고, 감독님과 생각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승리로 7위에 머물던 광주는 승점 41점을 쌓아 FC서울, 강원FC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서 파이널 A 공히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광주 백두산, 전국승마대회 우승

장애물 110클래스 통합 1위

광주광역시 승마협회(회장 최철원) 소속 백두산(33·사진) 선수가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5년 추계전국승마대회 장애물 110클래스에서 통합 1위를 차지했다.

광주승마협회 선수이자 활동 중인 백두산은 평소 꾸준한 훈련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선수로서뿐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수준급 말 조련 실력을 바탕으로 회원 자마를 교육시켜 전국대회 우승까지 이끌었다.

최철원 협회장은 “매 대회마다 광주승마협회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협회의 자랑이자 광주 승마인의 명예를 높여 주는 쾌거”라고 말했다.

광주승마협회는 차세대 승마 유망주 발굴을 위해 유소년과 청소년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우



수 선수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